



MUSEUM SAN



MUSEUM SAN

소개

05 뮤지엄SAN 소개

- ✓ 사계절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품에서 건축과 예술이 하모니를 이루는 복합 문화공간
- ✓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뮤지엄

Museum SAN

Space

Art

Nature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 극찬



“어디에도 없는 꿈의 미술관”

“자연과 미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될 것”

✓ 사람들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세 개의 '무(無)의 공간'

✓ 풍경 곳곳에 설치된 대형 조각들은 장소의 트레이드마크
(마크 디 수베로, 알렉산더 리버만, 헨리무어, 자코메티 등)

✓ 제임스 터렐이 담은 한국의 하늘!

05 뮤지엄SAN 소개

Artling Magazine “아시아 4대 미술관” 선정

2. Museum SAN, South Korea

Mode of transport: bus or car

Recommended duration of stay: 1-2 days



*The museum annex which houses five works by American artist James Turrell
Image courtesy of Museum SAN*

Museum SAN, previously known as Hansol Museum, is located near Wonju-si in Gangwon-do, South Korea. The main building itself is designed by Japanese architect, Tadao Ando while a separate building is dedicated to housing five works by the American artist James Turrell, known for his multi-sensory immersive light installations. The sprawling grounds also include a flower garden, a water garden and a stone garden.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하는 4대 뮤지엄”
“세계적인 건축과 컬렉션을 보유한 뮤지엄”

05 뮤지엄SAN 소개

미국공영방송 PBS의 인기 프로그램
“Joseph Rosendo’s Travelscope” 에 소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한국 대표 뮤지엄으로 소개



05 뮤지엄SAN 소개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5회 연속 선정



파이낸셜타임즈의 극찬

건축(Space), 예술(Art), 자연(Nature)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3개 정원 + 3개 건물

자연과 예술을 즐기는 동안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 선사

2023년에 30만명 이상 방문 예상

뮤지엄SAN 10주년 개관기념 안도타다오 건축 전시

“靑春(Youth)” 예정으로 언론의 주목을 통해 전세계 이목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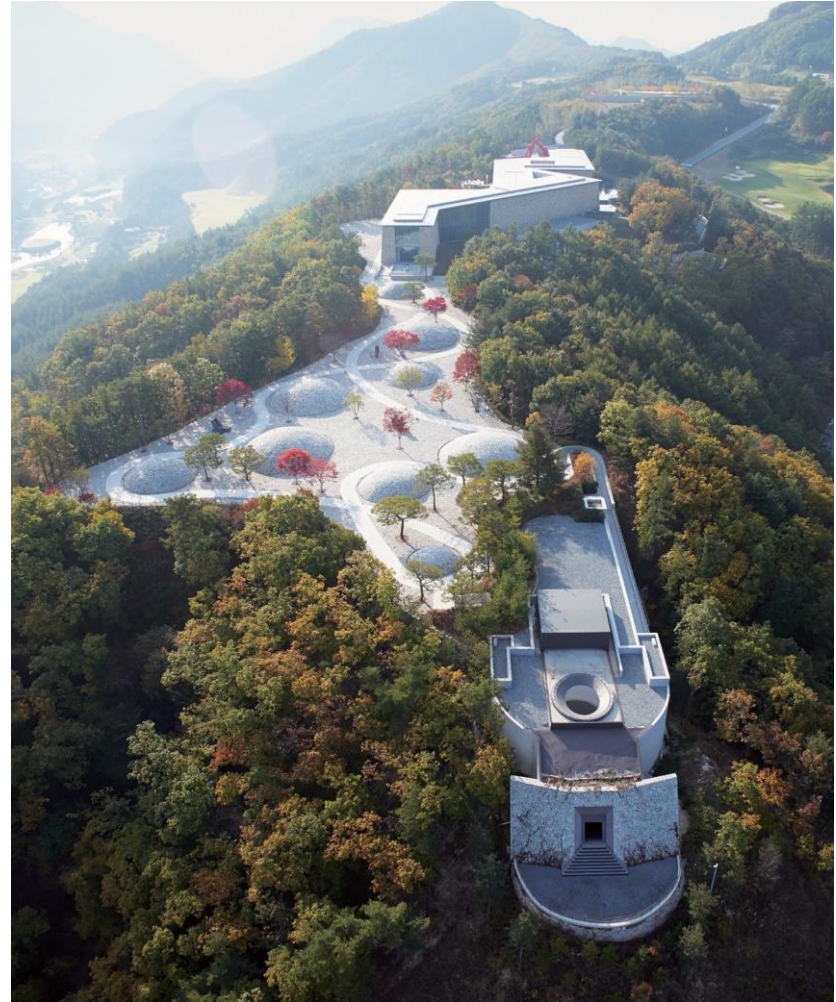
주요 언론 소개

- 미국 Monocle "사색과 발견을 위한 평화로운 안식처" (2018)
- ART news(미국) "한국 아트 투어 및 제임스터렐 작품"(2022)
-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 명상관 2회 연속 선정
- TTG Asia(싱가폴) "웰니스 명소"(2022)
- The Times "한국의 추천 여행지"(2022)
- 한국메세나협회 & 매일경제MBN <한국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수상(2022)

주요 언론 소개

- CF 맥심 카누 커피 광고 촬영"(2016)
- CF 현대 제네시스 "THE GENESIS" 광고 촬영(2017)
- 주니치, 마이니치 신문사 및 보그(네델란드), 갤러리먼쓰리(미국)(2017)
- Casa Brutus(일본) 화보 촬영(2017)
- Nikkei Asian Review, Monocle(영국), 간사이 TV(2018)
- Harper's BAZAAR ART 화보 촬영(2018)
- 메종, 보그코리아 소개(2019)
- Billboard, SBS(호주) BTS 멤버 방문(2019)
- AP NEWS, Snapstaste(미국)(2020)
- 내셔널 지오그래픽 Traveler 화보 촬영(2020)
- 드라마 "마인" 촬영(2021)

05 뮤지엄SAN 소개



05 뮤지엄SAN 소개

살아갈 힘을 되찾는 곳

Museum SAN은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며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힐링하는 전원형 Museum 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노출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의 오묘한 아름다움, 전시된 종이 공예품들에 담백 스며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 제임스터렐이 선사하는 빛의 예술.

세상 어디에도 없는 Museum SAN에서 보내는 하루는 잃어버린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낭만과 여유를 되찾는 멋진 기회가 될 것 입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Museum SAN

'살아갈 힘'을 되찾는 곳으로의 여행

Space 건축 → Art 예술 → Nature 자연

- ✓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 설계
- ✓ 해발 270m 산 정상에 위치
- ✓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전원형 뮤지엄 (전체길이 700m, 동선거리 2.4km)



페이퍼 갤러리

- ✓ 1997. 국내최초 종이 전문 박물관 개관
- ✓ 10여 점의 지정문화재 포함 공예, 전적류 소장

청조 갤러리

- ✓ 20세기 한국 근현대 회화, 판화,드로잉 집중 소장

제임스터렐 관

- ✓ 21세기를 대표하는 라이트아트 거장의 대표작 구성
- ✓ 아시아 최대규모 상설 전시관

명상관

- ✓ 공간과 자연, 예술이 전하는 영감과 여유로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적 휴식

■ 파피루스 온실

- ✓ 유럽에서 종이 이전 사용된 기록매체

▲ 삼각 코트

- ✓ 안도 타다오의 노출 콘크리트와 자연과의 조화

● 백남준관

- ✓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 특별 전시관

플라워 가든

- ✓ 100만주 패랭이꽃

워터 가든

- ✓ 1000톤, 해미석 400만개 구성

스톤 가든

- ✓ 한반도 상징의 9개의 스톤 마운드

05 뮤지엄SAN 소개

Museum
Space

Art

Nature



Museum SAN의 꿈은 관람객들이 기계, 모바일, 인공적인 물질 문명과 대량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나, 가족, 친구, 예술, 자연과의 '관계'에 다시 눈을 뜨며 소중한 삶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쉼과 소생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는, 늘 열려있는 공간으로 새로운 소통의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Space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난 아름다운 산과 자연으로 둘러 쌓인 아늑한 그곳에 별천지를 세우고 싶었어요.” ... 안도 타다오

한국의 조약돌, 자갈, 모래로 만든 회색 노출콘크리트와 노르스름하고 따스한 빛깔의 파주석(자연석)의 조화로 만들어진 Museum SAN의 건축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각성시킬 단단한 신념과 부드러운 포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꽃, 물, 돌을 콘셉트로 한 세 종류의 자연 정원, 웰컴센터와 본관, 제임스터렐관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동선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산책하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본관에는 Box in Box 형태로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無의 공간이 4개 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산세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마치 뮤지엄을 들어서 옮겨 놓은 것 같은 풍경을 선사하며, 우리에게 자연친화적이고 신선한 영감을 부여합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총 부지 22,000평 남짓한 이 곳은 전체가 다 명상의 공간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자연 빛과 한국 고유의 색감이 일품인 자연석, 깨끗하고 투명한 물로 에워싸인 이곳은 동양적인 명상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간 내부에 사각형, 삼각형, 원형의 하늘로 뚫려있는 공간은 당신이 도시에서 잃어버린 빛, 바람 등의 자연의 감각을 내면까지 끌어당겨 줄 것이며 세상 어느 뮤지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파피루스 온실

파피루스는 종이(Paper)의 어원이 되는 서사 재료로서 페이퍼갤러리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사각형 공간이자 대지를 상징하는 일종의 중정(中庭)으로서 실내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외공간입니다. 빛, 바람, 눈, 비 등 계절이 전해주는 시간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백남준 전시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미디어 작품을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약 9m 높이의 원형 공간은 천정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건축에 끌어들이는 드라마틱한 공간입니다. 건축의 웅장함과 물 위에 떠 있는 듯 자리한 백남준 작품의 생동감이 어우러져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삼각코트

청조갤러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삼각코트는 건축가에 의해 기획된 '무(無)의 공간'이자 사람(人)을 상징하여 □의 대지와 ○의 하늘을 연결해주는 공간입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삼각형 공간 안에서 올려다보는 하늘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여유있는 힐링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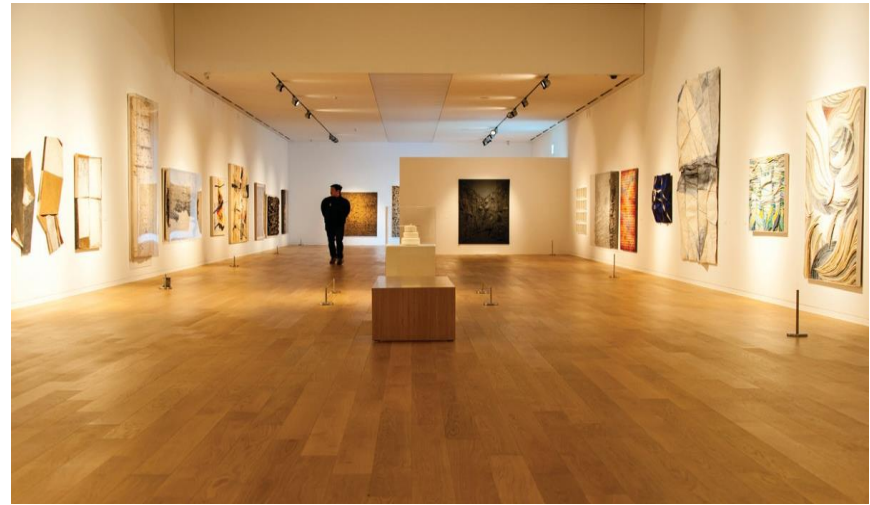
Art_Gallery

Museum SAN은 종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맥을 잇는 국내 최초의 종이 박물관인 페이퍼 갤러리,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회화, 판화, 드로잉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청조갤러리, 자연 빛과 인공 빛의 향연이 유려하게 펼쳐지는 제임스 터렐관을 중심으로 종이와 미술의 상징적 접점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즐거운 판화 체험이 진행되는 판화공방과 음악회와 문학공모전 등 알찬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페이퍼 갤러리 [Paper gallery]

페이퍼 갤러리는 산업적 가치의 종이보다는 우리 종이의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연구, 소개 작업을 추진해 온 한국 최초의 종이전문 박물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10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청조갤러리 [Cheong-jo gallery]

청조갤러리는 한국의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는 역사적 맥락과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서라는 고유성, 미술이 인류 공통의 문화현상이라는 보편성을 추구한 수준 높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Art_James Turr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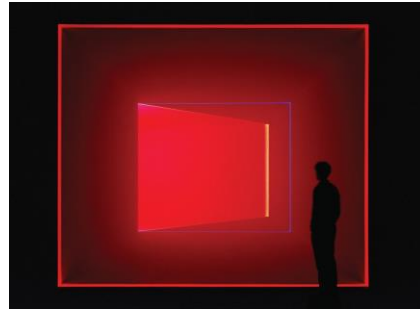


스카이스페이스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터렐의 대표작품 5개를 볼 수 있는 특별 전시장입니다. 동그렇게 오픈된 천장에서 아름다운 하늘빛이 잔뜩 쏟아지는 스카이스페이스(Skyspace), 뭉게구름 속을 헤매는 듯한 신비한 경험을 안겨주는 간츠펠트(Ganzfeld), 허공에 빛을 담아내 빛의 환영으로 매혹시키는 웨지워크(Wedgework),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게 하는 빛의 제단 호라이즌 룸(Horizon Room)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빛의 아름다움과 상상 너머의 무한한 공간감 속 특별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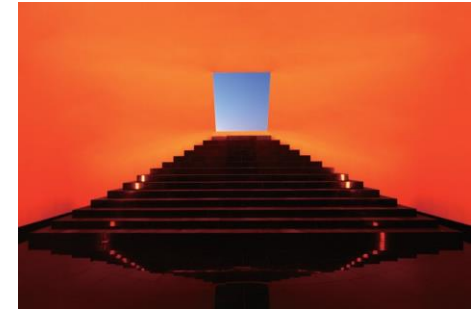
스페이스 디비전



웨지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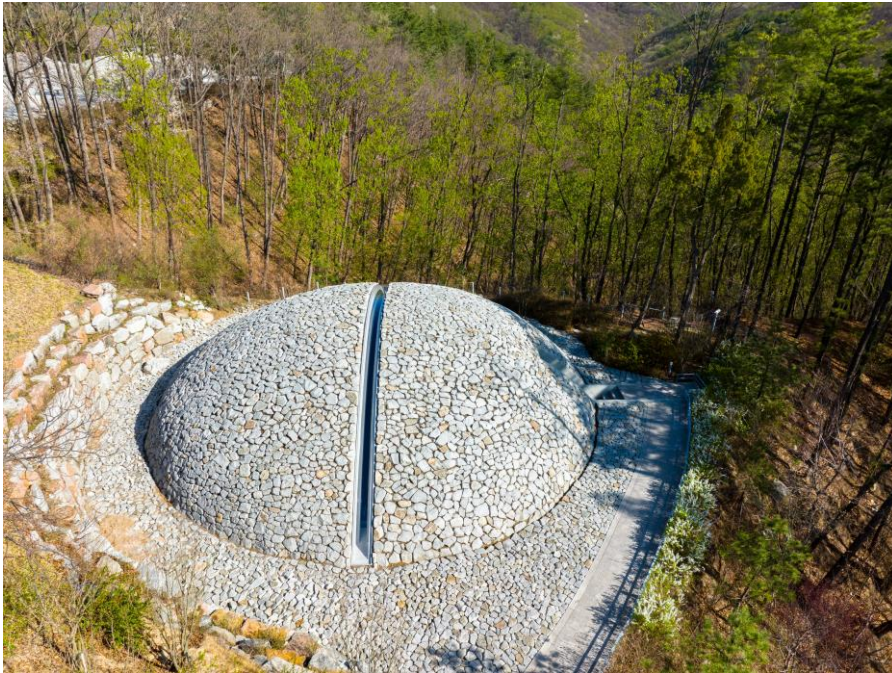
간츠펠트



호라이즌 룸

05 뮤지엄SAN 소개

Art_Meditation Hall



명상관 [Meditation Hall]

뮤지엄개관 5주년 기념으로 “살아갈 힘을 되찾는 장소”를 재고하며 40평 면적의 돔 공간으로 스톤가든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는 유리창을 통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과 풍경을 담아내었고 뮤지엄산의 공간과 자연, 예술이 전하는 영감과 여유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적 휴식, 명상을 제안드립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Nature_Garden

산 정상에 세워진 Museum SAN에서는 향긋한 패랭이꽃내음, 높고 푸른 하늘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우연히 차를 세우고 들어갔다가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은밀한 재미와 놀라운 감동을 줍니다. 사계절 어느 때에 방문해도 아름답고 근사한 정경을 뽐내는 3개의 야외정원은 관람객을 흡족하게 합니다. 80만 주의 붉은 패랭이꽃이 그림 같은 장관을 이루는 봄과 여름, 워터가든 위로 단풍이 고고히 떨어지는 예술적 정경을 볼 수 있는 가을, 새하얀 눈이 덮여 스산한 매력의 고성을 연상케 하는 겨울 설경. Museum SAN에서 바람, 햇빛, 자연을 누리며 느긋하게 즐기는 산책은 분주한 삶의 진정한 쉼표가 되어줄 것 입니다.



워터가든 [Water Garden]

뮤지엄 본관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요하고 눈부신 물의 정원입니다. 물에는 건물과 수목, 하늘이 반사되어 공간의 깊이와 확장감을 부여하며 물속의 해미석과 본관으로 이어진 Archway는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플라워가든 [Flower Garden]

순수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80만 주의 붉은 패랭이꽃과 약 180그루의 하얀 자작나무로 조성된 길이 인상 깊은 플라워가든은 자연과 예술 조각이 드넓은 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스톤가든 [Stone Garden]

경주 신라시대 고분을 모티브로 한 스톤가든은 9개의 부드러운 돌 언덕과 그 사이의 산책길을 품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나오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산책길을 따라 해외 작가의 조각품을 감상하며, 대지의 평온함과 돌, 바람, 햇빛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Nature_Snow scene



플라워가든 [Flower Garden]

겨울은 다음 계절인 봄을 준비하며 만물의 흐름을 주관하고 변화, 종착, 시작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과묵해 보이는 안도 다다오의 노출콘크리트 건축은 겨울이라는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현대적이고 도시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연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안도의 건축은 매 순간 표정을 바꾸는 계절의 다채로움에 열려 있습니다. 눈이 내린 뮤지엄 SAN의 설경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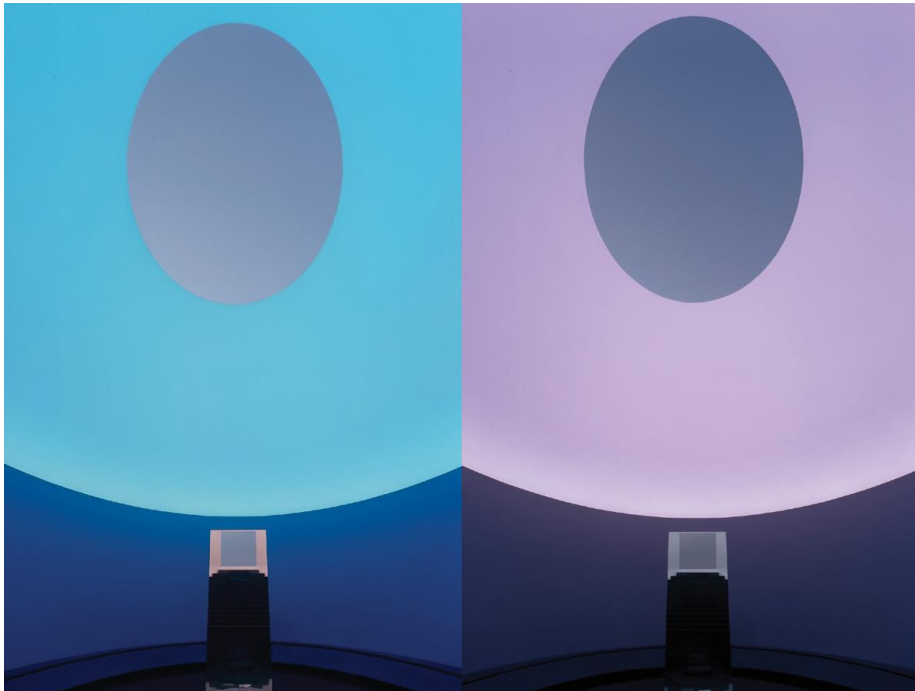
워터가든 [Water Garden]



스톤가든 [Stone Garden]

05 뮤지엄SAN 소개

Program



Special Program

컬러풀나이트 프로그램

일반관람이 종료된 후, 제임스터렐관에서 특별히 진행되는 일몰 프로그램입니다.



판화공방 프로그램

판화장과 함께하는 워크숍, 산들리에 프로그램, 전문인 프로그램 등 아날로그 판화 제작과정을 통해 복제 예술의 섬세한 과정을 체험하고 탐구 할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콘서트

꿈같은 숲 속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낭만적인 선율로 지쳐있는 심신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콘서트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Facilities



카페테라스

Museum SAN 본관, 워터가든 위에 있는 야외 테라스로, 개방된 자연 속에서 진정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CF 촬영장소 (카누 CF 사진)

Inside Facilities



세미나실

뮤지엄 본관 내에 있는 세미나실은 회의, 워크숍, 교육 및 강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Museum SAN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05 뮤지엄SAN 소개

Information

1. Welcome Center



2. Flower Garden



3. Water Garden



4. Paper Gallery



5. Cheong-jo Gallery



6. Stone Garden



7. Meditation Hall



8. James Turrell



05 뮤지엄SAN 소개

Guide




• 관람시간

10:00 ~ 18:00 (매표마감 오후 17시)

*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 입니다.

• Contact us

단체 관람/행사 문의 033)730-9034



자연과 문화의 어울림 속에서
휴식과 사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계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Museum SAN

운영지원실 남궁위 수석

033-730-9034 · 010-4318-5838 / wnamkoong@hansol.com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 www.museumsan.org

©Museum SAN